

## 한국 초기 청소년 공격성척도(K-PCS) 타당화 연구

하문선\* · 김지현\*\*

### 초 록

본 연구는 한국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영경(2008)이 PCS(Peer Conflict Scale)를 번역 과정을 거쳐 얻은 척도를 검토 및 수정보완 과정을 거친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요인구조가 원척도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문항의 제거 과정을 통해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Reactive Overt aggression; RO) 4문항,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Proactive Overt aggression; PO) 4문항,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Reactive Relational aggression; RR) 4문항,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Proactive Relational aggression; PR) 4문항의 최종 16개 문항, 4개 요인을 얻었다. 이를 다시 새로운 표집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TLI, CFI, RMSEA, AIC 등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4요인 구조가 통계적으로 타당화되었다. 추가적으로, 최종 척도가 남녀 집단간 차이 없이 공통의 이론적 구조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동등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부분절편 동일성, 요인분석 동일성을 확보하여 잠재평균 비교분석을 하였다. 또한 최종 척도와 특성분노척도, YSR 공격행동척도, 스트레스척도, 자아존중감척도와와의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는 변별타당도, 수렴타당도 및 준거타당도가 확보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본 척도가 초기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파악하는 기초적인 상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공격성, PCS, 초기 청소년

\*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 박사과정수료, 교신저자, sunny7601@hanmail.net

\*\*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 I. 서론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사춘기'라 불리는 혼란의 시기로 신체적·정서적·행동적 변화를 동반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대인관계 문제는 물론 다양한 정서 및 행동문제를 야기한다(Roeser & Eccles, 1998). 청소년 문제들 중 최근에는 학교폭력, 비행, 자살 등의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통계청, 20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점점 초등학교 고학년으로까지 확대되어 자연화되고, 일상화·과격화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최근 5년 동안 전체 청소년 범외에서 16세 이하의 범외율이 그 이상의 범외율을 앞지르고 있으며(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학생 전체의 53.6%이고, 학교폭력의 피해로 인해 60.8%가 '죽을만큼' 고통스럽다는 보고는(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 이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초기 청소년 비행과 관련이 있는 심리적 특성 중 대표적인 것이 공격성이다(Dryfoos, 1989). 공격성은 삶의 전반기에서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Farrington, 1989), 청소년 초기 단계에서 발현된 공격성은 이후 청소년기 동안 증가하여 성인기의 심각한 공격성(Coie & Dodge, 1998) 및 약물 사용, 비행, 만성적 폭력 등의 문제행동을 예측한다고 보고되었다(Farrell, Sullivan, Esposito, Meyer & Valois, 2005). 최근 공격성의 변화경향에 대한 연구에서 공격성은 아동기에 시작되어 청소년 중기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통적으로 약 11세~14세에 절정을 이룬다고 보고되었다(Farrell et al., 2005; Karriker-Jaffe, Foshee, Ennett & Suchindran, 2008; 김동기, 홍세희, 2007; 서미정, 2009).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단계에서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공격성의 성차와 관련된 다양한 과학적 연구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더 공격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Maccoby & Jacklin, 1974). 그러나 70년대 이후 공격성 관련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항상 더 공격적이라는 가설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지 않았다(Frodi, Macaulay & Thome, 1977). 또한, 여성 공격성의 특징은 관계적 공격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진(Crick, 1995) 이후 성별에 따른 양상 또는 유형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는데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공격성이 성에 따라 그 차이가 일관되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와 유형으로 표현되는 것은 공격성에 대한 다양한 개념의 사용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척도의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유태혁, 민병근과 이길홍(1984)은 청소년 공격성 연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격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관점에서 분류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았다. 공격성(Aggression)은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화나게 하려는 의도된 행동(Eron, 1987), 혹은 다른 유기체에 유해한 자극을 가하는 반응(Buss, 1961)으로 개념화되는 등 학자들에 따라서 혹은 접근 방법에 따라 그 정의가 다양하다. 또 각 정의에 따라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Frodi et al., 1977),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Crick & Grotpeter, 1995) 등 다양하게 분류된다. 이러한 정의와 유형에 따라 척도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국외에서 많이 사용되는 척도로는 Buss와 Durkee의 척도(Buss-Durkee Hostility Inventory; BDHI, 1957), Buss와 Perry의 척도(Aggression Questionnaire; AQ, 1992)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BDHI를 변안한 노안녕의 척도(1983), AQ를 변안한 정동화의 공격성 척도(1995)와 서수균과 권석만의 공격성 척도(2002) 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현적-관계적 형태와 반응적-주도적 기제라는 두 차원을 합침으로써 공격성의 4요인을 다각도로 분류할 수 있는 PCS(Peer Conflict Scale, Marsee, Kimonis & Frick, 2004)가 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이 척도를 한영경(2008)이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이것을 여러 연구들(이홍, 김은정, 2012; 심은신, 이동훈, 2011; 한영경, 김은정, 2011; 윤현해, 김희화, 김경연, 2010)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PCS의 경우 미국의 청소년 소년사범, 중퇴 청소년 등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4요인 구조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우리나라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타당화가 요구된다. 특히, PCS는 요인간 1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문항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도구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피검자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며 주의력 부족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영경(2008)이 번역 과정을 통해 얻은 PCS를 다시 검토하여 수정보완한 후 최종 문항을 선정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원척도와 동일한 4요인구조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일부 문항의 제거 과정을 거쳐 시간적 효율성과 간편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초기 청소년용 공격성 척도를 타당화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 공격성은 4요인 모델을 지지하는가?

둘째, 초기 청소년 공격성의 요인과 문항 구성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공격성의 정의

공격성은 학자에 따라서 혹은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공격성의 정의는 관찰 가능한 행동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공격자의 의도나 동기를 고려하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대별된다.

첫째, 공격성은 인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정의되거나(Eron, 1987),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을 해치는 행동'으로 정의되었다(Feshbach, 1970). 이 정의들은 공격행동의 특성 및 반응과 같은 가시적인 관찰결과에 의존하여 판단하므로 객관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행위자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둘째, 공격성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목표로 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Aronson, 1980; Berkowitz, 1993). 국내 연구에서도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을 지닌 신체적, 언어적 행동과 위협적인 자기방어 태도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담은 사고 및 정서'로 공격성을 보다 넓게 정의하였다(곽금주, 1992). 이 정의들은 공격성의 선행적 측면인 행위자의 의도를 고려한 개념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며, 의도만으로 공격행위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의도가 포함된 공격성은 타인에게 신체적, 심리적인 피해를 주게 됨은 물론 공격자 자신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어왔다(Crick & Grotpeter,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공격성을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공격성 유형 및 성별에 따른 차이

공격성의 다양한 정의에 따라 그 하위유형은 주로 목적, 표현여부나 표현방법 등에 따라 구분된다. Rule과 Nesdale(1974)은 공격성을 사회적 목적을 지닌 사회적-도구적(Social-instrumental) 공격성과 개인적 목적을 지닌 개인적-도구적(Personal-instrumental) 공격성 및 적의적(Hostile) 공격성으로 분류하였다. 또, 공격성은 도구적인 공격성과 적대적인 공격성으로 나뉘지거나(Hartup, 1974; Dodge & Coie, 1987), 공격 유형에 따라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으로, 공격 대상에 따라 직접적 공격성과 간접적 공격성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Frodi et al., 1977). Quay(1986)는 신체적 폭력, 반항 행동 등의 외현적(Overt) 공격성과 절도, 등교거부, 가출 등의 내현적(Covert) 공격성으로 나누었으며, Dodge와 Coie(1987)는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 상황에 반응하는 반응적(Reactive) 공격성과 타인을 지배하는 등의 특정한 보상을 얻기 위한 주도적(Proactive) 공격성으로 분류하였다. 그 후, Crick과 Grotpeter(1995)은 공격유발 대상에게 직접 신체적 공격과 언어적 공격을 행하는 외현적(Externalizing) 공격성과 집단의 힘이나 압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감정이나 관계를 손상 또는 위협함으로써 남에게 해를 주는 간접적인 형태의 관계적(Relational)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기존에 측정된 공격성 연구들이 외현적 공격성에 치우친 반면, 여성 공격성의 특징이 관계적 공격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성에 따른 양상 또는 유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Crick & Grotpeter, 1995; 이경희, 1998).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거나 부족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공격성으로 표현되는 외현적 공격성은 주로 남학생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었다(Salmivalli, Lagerspetz, Bjorkqvist, Osterman & Kaukianen, 1996; Farrell et al., 2005; 서미정, 2009). 반면, 관계적 공격성은 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고 보고되었으나(Nelson, 1999; Bowie, 2007; 신미숙, 1997; 이경희, 1998), 성차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거나(Rys & Bear, 1997; 박영신, 2005), 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Henington, Hughes, Cavell & Thompson, 1998). 90년대 이후, 반응적(Reactive) 공격성과 주도적(Proactive) 공격성에 대한 연구들은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적응 양상이나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Atkins, Stoff, Osborne & Brown, 1993; Dodge, 1991; Pulkkinen, 1996), 국내

에서는 공격성을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연구(윤리라, 1998; 전선영, 2000)가 얼마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괴롭힘의 상황에서 남학생은 오직 반응적 공격성을, 여학생은 오직 주도적 공격성을 보이거나(오인수, 2010), 주도적 공격성만이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는(강지훈, 2005) 등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격성의 유형 및 성차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공격성을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으로 이분법적으로 개념화하여 연구하였다. 즉, 공격성을 개인적-사회적, 도구적-적대적, 신체적-언어적, 직접적-간접적, 외현적-내현적, 반응적-주도적, 외현적-관계적 등의 한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데 그쳤다. 결국, 연구자들이 밝힌 다양한 공격성 유형들은 하나의 차원에 의한 공격성 분류가 공격성의 다양한 속성들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단일 차원의 이분법적 구분을 통한 공격성 유형의 성차에 관한 연구들은 그 결과가 일관되지 못하고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3. 국내에서 사용되는 공격성 척도

현재 국내 공격성 척도들은 여러 학자들이 개발한 척도를 단순 번안하여 사용되거나 혹은 타당화 과정을 거친 후 사용되고 있다. BDHI(Buss & Durkee, 1957)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격성척도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이를 노안녕(1983)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여러 연구자들(김여가, 1997; 박지영, 2010)이 내용타당도 또는 안면타당도를 확인한 후 활용하고 있다. AQ(Buss & Perry, 1992)는 BDHI를 보완하고자 개발된 공격성척도이다. 국내에서는 AQ가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되었으며(서수균, 권석만, 2002),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간단한 내용타당도 검증만을 거쳐 사용되고 있다(정동화, 1995). 그 외 부모보고식 척도인 CBCL(Child Behavior Checklist, Achenbach & Edelbrock, 1983)도 많이 활용되는데, 국내에서도 표준화되어(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7)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척도들은 대부분 공격성을 단일 차원으로 간주한 것으로, 공격성을 관찰 결과와 의도 및 동기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할 때 이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십여 년 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포함한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Ostrov & Crick, 2006) 이를 측정하는 척도들이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그러나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 역시 동일하게 높은 내적, 외적 타당도를 보이고 있으며(Vitiello et al., 1991), 보다 구체적인 치료적 개입을 제안하고 있다(Dodge, 1991). 따라서 Little, Henrich, Jones and Hawley(2003)은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는 공격성의 형태(forms) 차원에,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으로 나누는 공격성의 기제(function) 차원을 결합함으로써 4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진 공격성의 차원을 제안하여 공격성을 다각도로 분류하는데 공헌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격성의 형태와 기제를 중심으로 4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지만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의 표현이 제한적이었다(Marsee, et al., 2004). 구체적으로, 반응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모든 문항은 분노의 결과로서의 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예.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날 때, 나는...)으로만 구성되었으며, 주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모든 문항은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문항(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는....)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Marsee et al.(2004)은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을 표현하는 어휘를 다양하게 하고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이 서로 상응하는 문항을 가지도록 수정해 PCS를 개발하고 12~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4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PCS는 청소년 소년사범들을 대상으로도 4요인 구조의 적합함이 확인되었고(Marsee et al., 2007), 학교중퇴 남녀 청소년들의 자기보고 비행과도 유의미한 상관이 보고되었다(Barry, Grafeman, Adler & Pickard, 2007). PCS의 사용은 공격성이 나타나는 형태뿐만 아니라 그 기제를 결합하여 공격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Marsee et al., 2004). 국내에서도 PCS가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한국 초기 청소년용 공격성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요인 분석 및 타당도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PCS(Peer Conflict Scale, Marsee et al., 2004)를 한영경(2008)이 번역 과정을 거쳐 얻은 척도를 본 연구자와 박사과정 대학원생 두 명, 초·중등학교 교사 4명이 초기 청소년의 이해도에 맞게 다시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PCS 40문항 척도를 완성하였으며, 최종 척도의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요인 분석 및 타당도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대상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경기에 위치한 초등학교 6학년 남녀 169명과 남녀공학중학교 2학년 남녀 75명, 남자중학교 1·3학년 67명 총 311명을 대상으로 PCS 40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16문항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해 선택된 최종 16문항에 대해 서울·경기에 위치한 초등학교 6학년 남녀 175명과 남녀공학중학교 1학년 남녀 31명, 2학년 남녀 118명, 3학년 30명 총 35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서울·경기에 위치한 초등학교 6학년 남녀 51명과 남녀공학중학교 2학년 남녀 67명 총 11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에 협조한 각 학교의 담임교사들은 사전에 설문지 실시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 설문을 직접 실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분포

단 계	학교급	학교수	학급수	대상	성별		총 학생수
					남	여	
탐색적 요인 분석	초등	4	7	6학년	92	77	169
				1학년	33	0	33
	중등	2	5	2학년	39	36	75
				3학년	34	0	34
전체	6	12		198	113	311	
확인적 요인 분석	초등	7	7	6학년	82	93	175
				1학년	26	5	31
	중등	5	5	2학년	70	48	118
				3학년	8	22	30
전체	12	12		186	168	354	
타당도 검증	초등	2	2	6학년	26	25	51
	중등	1	2	2학년	34	33	67
	전체	3	4		60	58	118
합 계					444	339	783

## 2. 측정 도구

### 1) 공격성척도(Peer Conflict Scale; PCS)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Marsee et al.(2004)이 제작한 PCS (Peer Conflict Scale)를 한영경(2008)이 번역 과정을 거쳐 얻은 척도를 본 연구자가 초기 청소년의 이해도에 맞게 다시 검토하여 수정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4개 하위유형(주도적 외현적, 주도적 관계적, 반응적 외현적, 반응적 관계적)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로 10문항씩 총 40문항, 4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Cronbach's  $\alpha$ 는 Marsee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전체 외현적 공격성은 .90, 전체 관계적 공격성은 .87,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은 .87,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은 .82,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80,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은 .76이었다. 한영경(2008)의 연구에서는 전체 외현적 공격성이 .90, 전체 관계적 공격성이 .88,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이 .87,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이 .80,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이 .80,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이 .7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전체 공격성이 .93이었고, 전체 외현적 공격성이 .89, 전체 관계적 공격성이 .90,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이 .81,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이 .81,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이 .82,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이 .81이었다.

## 2) 자아존중감 척도

초기 청소년 공격성 척도의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총 10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고, 한국판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9이었다.

## 3) 상태특성분노척도(State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Korean version; STAXI-K)

초기 청소년 공격성 척도의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Spielberger, Krasner and Solomon (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분노척도(STAXI)를 전경구, 한덕용, 이장호와 Spielberger (1997)이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STAXI-K는 상태분노 10문항, 특성분노 10문항, 분노-억제 8문항, 분노-표출 8문항, 분노통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분노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특성분노요인의 Cronbach's  $\alpha$ 는 전경구 등의 연구에서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2이었다.

## 4)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Korean version of the Youth Self Rating Behavior Checklist for ages 12-18; YSR 12-18)

초기 청소년 공격성 척도의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Achenbach와 Rescorla(2001)가 재개정한 YSR 6-18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한 K-YSR의 개정판(오경자, 김영아, 2010) 중 공격행동 소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7문항, 3점 Likert 척도로, Cronbach's  $\alpha$ 는 오경자와 김영아(2010)의 연구에서는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1이었다.

### 5) 스트레스 척도(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Korean; BEPSI-K)

초기 청소년 공격성 척도의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스트레스 측정도구인 BEPSI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Frank & Zyanaski, 1988)를 배종면, 정은경, 유태우, 허봉렬과 김철환(1992)가 타당화한 BEPSI-K를 임지혁 등(1996)이 수정·보완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문항, 5점 Likert 척도로, Cronbach's  $\alpha$ 는 배종면 등(1992)의 연구에서는 .84, 임지혁 등(1996)의 연구에서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 3. 자료 분석

앞에서 제시한 연구 단계에 따른 자료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 청소년 총 3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자료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 추출 방법으로 Maximum Likelihood 방식을, 요인 회전방법으로는 사교회전방식인 Direct Oblimin방식을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해 선택된 최종 문항에 대해 초기 청소년 354명을 표집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적합도 지수로는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으며, 각 요인의 문항에 대한 비표준화 계수 값과 표준화 계수 값 및 요인간 상관, 문항-총점 상관을 알아보았다. 또한, 남녀 집단별로 4요인 모형의 이론적 구조의 동등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로 새로운 표집을 구성하여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절편(척도) 동일성, 부분 절편(척도) 동일성, 요인분산 동일성 및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타당도 검증을 위해 수렴, 변별 타당도 및 준거타당도를 검증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PCS의 40문항, 4요인 구조가 한국 초기 청소년에게 그대로 도출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본 척도의 Likert 척도 2점(매우 그렇다)과 3점(확실히 그렇다)을 한 카테고리(2점)로 병합하였다. 모든 집단에서 2, 3점 척도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이 점수들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Marsee et al., 2011).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은 첫 번째 요인분석에서 Eigenvalue 기준값인 1이상인 요인의 수는 4개였으며, Scree Plot은 2요인 혹은 4요인 구조가 적합함을 제안하였다. 원척도에서처럼 4요인 구조를 선택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문항이 원척도와는 다른 요인에 속하거나 요인 교차의 문제를 보였다. 이에 원척도에서 제시한 네 개 요인별 10문항 각각에 대해 요인의 수를 1로 고정시킨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해 요인부하량이 큰 순서대로 각 요인별 4문항씩을 선택하여, 총 16문항으로 척도를 축약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원척도의 개발 목적을 반영하고 검사로서의 조건 및 초기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즉, 원래 PCS의 개발자들은 공격성의 형태와 기제를 결합한 4요인 구조를 가정하고 각 요인의 정의에 따라 문항을 개발하였다(Marsee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원저자의 의도에 따라 각 문항이 다른 요인에 적재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각 요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항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검사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6~15개 정도의 문항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며, 한 검사가 여러 개의 하위 척도들로 구성되는 경우 한 척도당 3~15개의 문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한국심리학회, 2002; Loewenthal, 1996). 또한 한 검사가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될 경우, 그 문항수는 12~20개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제안되었다(Tabachnick & Fidell, 2001). 특히, 초기 청소년의 경우는 많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척도들이 그들의 설문 참여 동기와 주의력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반영하여 선택된 총 16문항에 대해 다시 요인 추출 방법으로

Maximum Likelihood 방식을, 요인 회전방법으로는 사교회전방식인 Direct Oblimin 방식을 적용한 후 구조 행렬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표 2), 축약된 PCS의 16개 문항은 4개의 요인에 의해 총 변량의 60.0%가 설명되었다. 요인 1은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Reactive Overt aggression; RO), 요인 2는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Proactive Overt aggression; PO), 요인 3은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Reactive Relational aggression; RR), 요인 4는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Proactive Relational aggression; PR)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요인교차를 보이는 문항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는 원칙도에서도 다수 발견되는 현상으로(Marsee et al., 2004; Marsee et al., 2011), PCS는 각 요인간 상관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16문항은 모두 원칙도에서 가정된 요인에 가장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다.

표 2  
K-PCS의 요인 구조(N=274)

문 항	M	SD	요인1	요인2	요인 3	요인 4
			PO	PR	RO	RR
나보다 작은 애들을 못살게 구는 것이 재미있다.	.36	.63	.73	.36	.42	.34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재미있다.	.30	.59	.62	.27	.51	.22
나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위협할 때가 있다.	.19	.49	.62	.32	.34	.38
누가 나에게 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을 다치게 한다.	.57	.74	.57	.42	.54	.35
인기 있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을 한다.	.31	.57	.37	.82	.26	.40
다른 사람에 대해 뒷말을 하면, 내가 인기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진다.	.19	.49	.30	.64	.11	.33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해 소문과 거짓말을 퍼뜨린다.	.30	.57	.46	.53	.32	.31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말을 안 건다.	.58	.78	.49	.53	.30	.41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을 다치게 한다.	.59	.74	.47	.28	.86	.31
누구에게 화가 나면, 그 사람을 다치게 한다.	.84	.82	.52	.20	.82	.44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위협한다.	.66	.74	.47	.16	.56	.40
누가 나를 다치게 하면, 결국 싸움을 하게 된다.	1.1	.79	.36	.14	.48	.40

문항	M	SD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PO	PR	RO	RR
누가 나를 짜증나게 하면, 친구들에게 그 사람을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75	.78	.42	.39	.37	.65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을 내 집단에서 빼 버린다.	.45	.76	.40	.43	.33	.63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새 친구를 사귈다.	.55	.82	.31	.60	.25	.61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의 친구를 빼으려고 한다.	.28	.61	.51	.50	.32	.55
Eigenvalue			5.91	1.75	1.69	1.05
설명분산(%)			36.96	10.91	6.58	5.55

## 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해 선택된 최종 16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새로운 자료에서 요인구조의 일반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먼저, 본 척도의 요인 구조에 대해 표 3과 같이 세 가지 가설 모형을 비교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단일요인 모형으로 16문항 모두 전체 공격성 요인 한 개에 부하되는 모형이다. 두 번째 모형은 전체 16문항이 8문항씩 2요인(외현적, 관계적)에 분리되어 부하되는 모형이다. 이 2요인 모형은 단일요인 모형보다 적합도가 다소 향상되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형은 전체 16문항이 4문항씩 4요인(반응적 외현적, 주도적 외현적, 반응적 관계적, 주도적 관계적)에 지정되어 부하되는 모형이다. 세 가지 가설 모형 중 세 번째 4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chi^2(98, N=354)=268.038, p<.001, TLI=.898, CFI=.917, RMSEA=.070$ 으로 가장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Hair, Black, Babin, Anderson and Tatham(2006)이 제시한 적합도 기준을 대체로 충족하였다.  $\chi^2$ 통계량과 추정모수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는 두 개 이상의 경쟁모형들을 비교하는 경우 사용되는 지수로, 더 낮은 AIC를 갖는 모형이 더 나은 모형이 된다(이학식, 임지훈, 2008). 따라서 적합도 지수가 가장 양호하며 AIC지수가 가장 낮은 모형인 4요인 모형이 새로운 자료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종 선택된 4요인 모형에서 각 요인의 문항에 대한 비표준화 계수 값은 모두 유의한 것( $p < .01$ )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표준화 계수 또한 .50-.79의 비교적 안정적인 값을 보였다. 따라서 모든 문항이 각 하위 요인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측정변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인간 상관은 .73-.92이었으며, 각 문항의 문항-총점 상관은 .25-.63이었다.

표 3  
PCS의 요인 모형의 비교

Model	$\chi^2$	df	N	TLI	CFI	RMSEA (90% CI)	AIC
단일요인 모형 (경쟁 모형)	406.383	104	354	.830	.852	.091(.082-.100)	502.383
2요인 모형 (경쟁 모형)	335.765	103	354	.868	.886	.080(.071-.090)	455.355
4요인 모형 (연구 모형)	268.038	98	354	.898	.917	.070(.060-.080)	376.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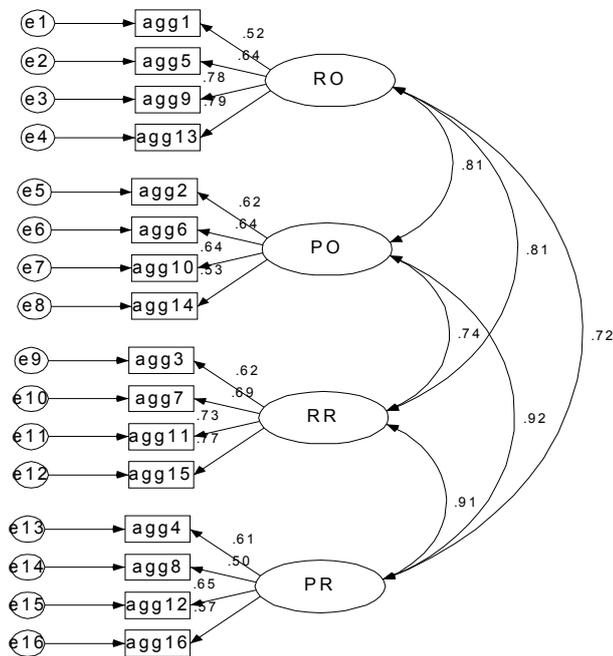


그림 1. PCS의 구조모형(N=354)

### 3. 다집단 동등성 검증

남녀 집단별로 4요인 모형의 이론적 구조의 동등성을 검증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 표4와 같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를 확인한 다음, 추가로 남학생(N=174)과 여학생(N=169) 집단의 새로운 표집을 구성하여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척도(절편)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은 집단 간 요인구조가 같은지 검증하고자 하는 경우에 쓰는 방법으로(홍세희, 2001),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집단간 이론적 구조가 같은지 검증하고자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자료를 대상으로 어떠한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초 모형 분석을 통해 형태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표5와 같이 RMSEA가 .050, TLI와 CFI도 각각 .891, .911로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분산추정치(Variance)의 값에 음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형태 동일성이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측정 동일성 검증을 위해 두 집단의 요인계수가 같다고 가정한 모형2와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는 모형1의  $\chi^2$  차이 검증을 하였다. 두 모형간  $\chi^2$  차이값은 18.922, 자유도의 차이값은 12로 유의도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두 모형은 유사한 모형이다. 또한, RMSEA와 TLI, CFI를 살펴보면, 모형 1과 모형 2에서 RMSEA 값은 변화가 없고, TLI는 오히려 좋아졌으며, CFI 역시 미미하게 차이가 나므로 측정동일성은 확보되었다. 이는 남녀 두 집단에서 본 척도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절편 동일성 가정을 검증하였다. 측정 동일성 모형(모형2)과 각 측정 변인의 절편까지 동일화 제약을 가한 절편 동일성 모형(모형3) 간에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모형2와 모형 3의  $\chi^2$  차이값은 52.467, 자유도의 차이값은 16으로 유의도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RMSEA와 TLI, CFI 역시 나빠졌다( $\Delta$ TLI=-.018,  $\Delta$ CFI=-.024  $\Delta$ RMSEA=-.004). 이를 해결하기 위해 측정변수의 절편이 다른지를 확인하였고 측정변수의 동일화 제약을 풀어줌으로써 완전히 제약을 가한 절편 동일성 모형3에 비해서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좋아졌다. 부분절편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분절편 동일성 모형인 모형4와 측정 동일성 모형2의  $\chi^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  차이값이 18.332, 자유도가 11로

두 모형의 차이가 유의도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RMSEA와 TLI, CFI를 살펴보면, 모두 거의 일치하는 값을 보여 부분절편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이는 남녀 두 집단에서 측정도구와 절편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찰된 평균차는 잠재 변인에 대한 집단 간 실제 차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확보된 부분절편 동일성을 바탕으로 척도의 잠재평균이 남녀 집단에 따라 다른지에 대한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평균분석에서는 요인의 평균은 직접 추정이 불가능하며 한 집단(참조 집단)의 잠재 평균을 0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다른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는 것만 가능하다(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 집단을 참조 집단으로 하여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하고 남학생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6에 나타나 있다. 잠재 평균 차이를 해석하기 위해 코헨(Cohen)의 효과 크기(d)를 계산한 결과 역시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효과 크기를 산출할 때 집단간 요인의 공통 표준 편차를 적용하기 때문에 집단간 요인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요인분산 동일성 가정이 성립해야 한다. 표 5에서 제시된 것처럼 모형 4과 모형 5의  $\chi^2$  차이값이 5.281, 자유도의 차이값은 4로 유의도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RMSEA, TLI 값은 각각 .001 더 좋아졌으므로 요인분산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요인분산 동일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효과 크기의 값은 공통표준편차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코헨(Cohen)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효과 크기(d)의 값이 .3은 작은 수준, .5는 중간 수준, .8은 큰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6과 같이,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남녀 차이가 발견되었다( $p < .05$ ). 즉,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과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큰 수준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에서의 남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4  
남녀 집단별 PCS 4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4요인 모형	$\chi^2$	df	N	TLI	CFI	RMSEA(90% CI)
남학생 집단	185.371	98	174	.888	.909	.072(.056-.087)
여학생 집단	143.346	98	169	.897	.916	.068(.042-.092)

표 5  
다집단(남·여)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N=343)

	$\chi^2$	df	TLI	CFI	RMSEA
모형1: 형태 동일성(기초모형)	328.819	196	.891	.911	.050(.040-.059)
모형2: 측정 동일성	347.741	208	.892	.906	.050(.040-.059)
모형3: 측정 및 절편(척도) 동일성	400.208	224	.874	.882	.054(.045-.062)
모형4: 측정 및 부분절편(척도) 동일성	366.073	219	.892	.902	.050(.041-.058)
모형5: 측정, 척도 및 요인분산 동일성	371.354	223	.893	.901	.049(.040-.058)

표 6  
PCS의 남녀별 잠재평균 차이분석

요인	남학생	여학생	d (남, 여)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RO)	.163	0	4.289***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PO)	.099	0	8.25***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RR)	-.010	0	.435*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PR)	-.005	0	.132

주. \*\*\* $p < .001$ , \*\* $p < .01$ , \* $p < .05$

#### 4.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 공격성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전체 Cronbach  $\alpha$ 는 .90이었으며, 각 요인별로는 요인 1의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Reactive Overt aggression; RO)은 .77, 요인 2의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Proactive Overt aggression; PO)은 .74, 요인 3의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Reactive Relational aggression; RR)은 .76, 요인 4의 주도적 관계적(Proactive Relational aggression; PR)은 .72로 나타나 모두 양호한 수준이었다.

표 7  
K=PCS의 신뢰도(N=311)

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alpha$
전 체	16	1~16	.90
RO (반응적 외현적)	4	1, 5, 9, 13	.77
PO (주도적 외현적)	4	2, 6, 10, 14	.74
RR (반응적 관계적)	4	3, 7, 11, 15	.76
PR (주도적 관계적)	4	4, 8, 12, 16	.72

주. \*\* $p < .01$ , \* $p < .05$

#### 5. 변별타당도, 수렴타당도 및 준거타당도

최종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표 8과 같이 변별타당도, 수렴타당도 및 준거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변별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척도와 자이존중감 검사와의 상관 관계를 탐색하였는데, 크지 않은 부적 상관(-.194,  $p < .01$ )을 보여 주었다. 다음으로, 본 척도의 수렴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특성분노척도 및 청소년 자기 행동 평

가 척도(YSR)의 공격행동과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성분노척도와 높은 정적 상관(.604,  $p < .01$ )을, 공격행동과도 비교적 높은 상관(.480,  $p < .01$ )을 보여주어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준거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척도와와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본 척도는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상관(.308,  $p < .01$ )을 보였다.

표 8

K-PCS 및 각 하위요인과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 공격행동과의 상관

	PCS	RO	PO	RR	PR	Self-Esteem	Anger	YSR	Stress
1									
2	.845**								
3	.868**	.697**							
4	.852**	.584**	.603**						
5	.866**	.574**	.716**	.808**					
6	-.194**	-.144*	-.201**	-.161**	-.225**				
7	.604**	.576**	.467**	.533**	.436**	-.168**			
8	.480**	.415**	.357**	.387**	.346**	-.246**	.515**		
9	.308**	.270**	.197**	.268**	.293**	-.391**	.326**	.362**	

주.  $N = 118$ (남=60, 여=58) \*\* $p < .01$ , \* $p < .05$

1. PCS 2. RO(반응적외현적) 3. PO(주도적외현적) 4. RR(반응적관계적) 5. PR(주도적관계적)  
6. Self-Esteem 7. Anger 8. YSR 9. Stress

## V. 논 의

초기 청소년 비행과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심리적 특성 중 하나인 공격성은 이후 청소년기뿐 아니라 성인기의 심각한 공격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공격성의 성에 따른 양상 또는 유형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지만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거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공격성에 대한 다양한 개념 및 척도의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부분의 척도들이 공격성이 나타나는 원인 및 기제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PCS(Marsee et al., 2004)가 개발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변안한 척도의 타당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40문항으로 이루어진 원척도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은 변인 측정이 필요한 연구에서 활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요인 구조를 확인해 보고, 축약된 간편형 한국어 PCS를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축약된 PCS 16개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RO, PO, RR, PR)에 의해 총 변량의 60.0%가 설명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해 도출된 요인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요인 모형은 새로운 자료에서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원척도에서의 4요인 구조가 한국어 간편형 척도에서도 타당하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척도의 요인들이 남녀별 집단간 차이 없이 공통의 이론적 구조를 보이는지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하여 추가로 새로운 표집을 구성하여 다집단 동등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및 부분 절편(척도) 동일성이 성립되어,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평균분석은 잠재변수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는 것으로 기존의 다변량분석에 비해서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Hong et al., 2003). 잠재평균분석 결과,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과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 및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남녀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척도가 남녀 두 집단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남녀 집단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공격성 점수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성차가 나타나므로(Maccoby & Jacklin, 1974; Crick & Grotpeter, 1995), 공격성척도의 기준을 제작한다면 남녀별 별도의 기준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격성 척도 내에서 하위척도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나뉘어진 하위척도별 사용이 일정 부분 유용함을 함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종 척도의 타당도 검증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본 척도는 자이존 중감과 크지 않은 부적 상관( $r = -.194, p < .01$ )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본 척도가 자이존 중감과 다른 영역을 측정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정 정도의 변별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을 자기애과 불안정한 자존감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하거나(Baumeister, Bushman & Campbell, 2000), 공격성 집단

을 걸음으로는 유사하게 보이지만 진정으로 자존감이 높고 자기수용적인 집단과 변별된다고(Salmivalli, 2001) 제시한 연구결과를 통해 일정 부분 지지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수렴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공격성 측정에 많이 사용되는 척도인 특성분노척도 및 YSR 공격행동척도와와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척도는 특성분노척도 및 YSR 공격행동척도와 높은 정적 상관(.604, .480)을 보여주어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을 충실히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반응적 외현적 및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이 다른 요인들보다 특성분노척도와 더 높은 상관(.576, .533)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노를 쉽게 경험할수록 반응적인 공격성을 나타낸다는(이홍, 김은정, 2012)는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한편, 준거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스트레스 척도와와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척도는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상관(.30,  $p < .01$ )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공격적인 학생들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다는(이주리, 2010; Kim, Conger, Elder & Lorenz, 2003) 선행 연구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척도의 타당화는 기존 척도와 비교하여 공격성에 대한 잠재적 원인(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며, 청소년 공격성의 하위요인별 원인과 표현 양상에 따라 구체적인 상담 및 개입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반응적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특성 분노와 높은 상관을 보이기 때문에 분노관리능력, 감정조절에 초점을 맞춘 상담 및 치료적 개입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척도와 분노, 공격행동,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등의 변인과의 유의한 상관은 본 연구 척도가 초기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파악하는 기초적인 상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척도는 비행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부적응을 측정하는 선별도구(screening instrument)로서 일반 학교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원척도의 경우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비행 및 일반 청소년 모두를 표집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 이르는 초기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청소년 전체 집단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표집 범위의 다양화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모든 측정 변인은 자기 보고에 의한 자료로 초기 청소년이 실제 타인에게 관찰되는 모습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Marsee et al.(2011)은 자기 보고에 의한 방법이 PCS 타당화 연구의 목적이며, 다른 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공격성 유형에서의 관련성을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공격적 행동(예.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을 다치게 한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다치게 한다(hurt)’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모호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척도에서는 이 용어가 외현적(overt) 공격성과 관련된 문항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심리적 속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외현적 또는 관계적 공격성에 모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Fite, Stoppelbein, Greening & Gaertner, 2009). 넷째, 일부 문항의 경우(예. 누가 나에게 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을 다치게 한다), 복수의 요인에 교차 부하하는 문제를 보였다. 이는 각 요인간 상관의 크기가 큰 것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번역 과정에서 언어적, 문화적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문화와 언어적 의미를 잘 반영하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최종 척도는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원척도의 40문항과 비교하면 상당히 축약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공격성 연구에서 많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척도들은 다른 척도들과 함께 질문지로 구성되어질 경우 오히려 연구 대상들이 응답해야할 질문지의 문항수가 너무 많아져 그들의 설문 참여 동기와 주의력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김지현 외, 2011).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척도의 타당화는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을 나타내는 형태인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뿐만 아니라, 공격성의 기제인 주도적, 반응적 공격성을 결합하여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격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술 및 이에 따른 효과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척도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강지훈 (2005). 남, 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한국 아동학회**, 26(1), 1-14.
- 곽금주 (1992). **공격영화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동기, 홍세희 (2007).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 검증. **조사연구**, 8(2), 21-42.
- 김여가 (1997). **부모의 언어통계유형과 아동의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인간이해**, 32(1), 47-65.
- 노안녕 (1983). **비행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의 감소에 미치는 주장훈련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신 (2005).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 학교적응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지영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우울 및 공격성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종면, 정은경, 유태우, 허봉렬, 김철환 (1992). 외래용 스트레스량 측정도구 개발연구. **가정의학회지**, 13(10), 809-820.
- 서미정 (2009). 방관자의 집단 특성에 따른 또래괴롭힘 참여 역할행동. **아동학회지**, 29(5), 79-96.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1.
- 신미숙 (1997). **아동의 공격성 유형에 따른 성차 및 사회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은신, 이동훈 (2011). 여중생의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 의도귀인과 또래동조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21-42.
- 오경자, 김영아 (2010).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휴노.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7). 한국판 CBCL의 문제 행동 증후군 지도 재구성을 위한 연구. **정신의학**, 20(1), 45-52.
- 오인수 (2010).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공감과 공격성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3(1), 45-63.
- 유태혁, 민병근, 이길홍 (1984). 학생 및 비행청소년의 욕구좌절과 공격성과의 상호관계. **중앙의대지**, 9(3), 371-394.
- 윤리라 (1998). **공격성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및 사회정보처리 특성: 반응적 공격성과 비반응적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현해, 김희화, 김경연 (2010).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에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1(4), 111-124.
- 이경희 (1998). **관계지향 공격성 및 외현화 공격성과 심리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주리 (2010). 아동의 스트레스와 공격성 간 종단관계 연구. **아동과 권리**, 14(1), 41-58.
- 이학식, 임지훈 (2008).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과 AMOS 7.0**. 서울: 법문사.
- 이홍, 김은정 (2012). 청소년의 공격성 하위 유형에 따른 인지 및 정서 특성. **청소년학연구**, 19(1), 227-250.
- 이훈진, 원호택 (1995). 자기개념과 편집증적 경향. **심리과학**, 4(2), 15-29.
- 임지혁, 배종면, 최순식, 김성원, 황환식, 허봉렬 (1996). 외래용 스트레스량 측정도구로서 한국어판 BEPSI 설문서(수정판)의 타당성. **가정의학회지**, 17(1), 42-49.
-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 C. 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60-78.
- 전선영 (2000). **반응적 및 주도적 공격성 아동의 사회정보처리와 행동특징**.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동화 (1995). **아동의 학교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부작용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 **2010년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통계청 (2011). **아동·청소년 정책통계지표**. 대전: 통계청.
- 한국심리학회 (2002). **심리검사 제작 및 사용 지침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 브리프**, 4, 1-7.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2010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I)**.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한영경 (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영경, 김은정 (2011). 초기청소년기 관계적 공격성 하위유형의 특성 탐색: 사회평가 불안과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4), 985-1002.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모형의 분석. **한국임상심리학회 워크샵 자료집**.
- Roeser, R. W., & Eccles, J. S. (1998). Adolescents' perceptions of middle school: Relation to longitudinal changes in academic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1), 123-158.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1). *Manual for the ASEBA School-Age Forms and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Aronson, R. S. (1980). Characteristics of action potentials of hypertrophied myocardium from rats with renal hypertension. *Circulation Research*, 47(3), 443-454.
- Atkins, M. S., Stoff, D. M., Osborne, M. S., & Brown, K. (1993). Distinguishing instrumental and hostile aggression: Does it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1(4), 355-365.
- Barry, C. T., Grafeman, S. J., Adler, K. K., & Pickard, J. D. (2007). The relations among narcissism, self-esteem, and delinquency in a sample of at-risk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30(6), 933-942.
- Baumeister, R. F., Bushman, B. J., & Campbell, W. K. (2000). Self-esteem, narcissism, and aggression: Does violence result from low self-esteem or from threatened egotis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1), 26-30.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Academic Press.
- Bowie, B. H. (2007).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the developmental proces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20*(2), 107-115.
- Buss, A. H. (1961). *The psychology of aggression*. New York: Wiley.
- Buss, A. H., & Durkee, A.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343-349.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55-159.
- Coie, J. D., & Dodge, K. A. (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779-862). Toronto: Wiley.
- Crick, N. R. (1995). Relational aggression: The role of intent attributions, feelings of distress, and provocation 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2), 313-322.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Dodge, K. A. (1991).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D. J. Pep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201-218). Hillsdale, NJ: Erlbaum.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58-966.
- Dryfoos, J. (1989). Family planning clinics: A story of growth and conflict. *Planned Parenthood Perspectives, 20*(6), 282-287.
- Eron, L. D. (1987).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a developing behaviorism. *American Psychologist, 42*(5), 435-442.

- Farrell, A. D., Sullivan, T. N., Esposito, L. E., Meyer, A. L., & Valois, R. F. (2005).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aggression, drug use, and delinquent behaviors and their interrelations over time in urban and rural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2), 179-204.
- Farrington, D. P. (1989). Early predictors of adolescent aggression and adult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4*(2), 79-100.
- Feshbach, W. (1970). Aggression. In P. H. Mussen (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Wiley.
- Fite, P. J., Stoppelbein, L., Greening, L., & Gaertner, A. E. (2009). Further validation of a measure of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within a clinical child populat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0*, 367-382.
- Frank, S. H., & Zyzanski S. J. (1988). Stress in the clinical setting: The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26*(5), 533-539.
- Frodi, A., Macaulay, J., & Thome, P. R. (1977). Are women always less aggressive than men review of experi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4*(4), 634-660.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 Hartup, W. W. (1974). Aggression in childhood: Development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9*(5), 336-341.
- Henington, C., Hughes, J. N., Cavell, T. A., & Thomson, B. (1998). The Role of relational aggression in identifying aggressive boys and girl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6*(4), 457-477.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Karriker-Jaffe, K. J., Foshee, V. A., Ennett, S. T., & Suchindran, C. (2008).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Sex differences in trajectories of physical and social aggression among youth in rural area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8), 1227-1236.
- Kim, K. J., Conger, R. D., Elder, G. H., & Lorenz, F. O. (2003). Reciprocal influences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olescent internalis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Child Development, 74*(1), 127-143.
- Littel, T. D., Henrich, C. C., Jones, S. M., & Hawley, P. H. (2003). Disentangling the "whys" from the "whats" of aggressive behaviou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2), 122-133.
- Loewenthal, K. M. (1996). *An introduction to psychological tests and scales*. London, England: UCL Press Limited.
-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Marsee, M. A., Barry, C. T., Frick, P. J., Kimonis, E. R., Muñoz, L. C., & Aucoin, K. J. (2007). *Assessing aggression in at-risk youth using the peer conflict scal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evaluation of factorial invariance across gender*.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uth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Orleans, LA, February.
- Marsee, M. A., Childs, K. K., Frick, P. J., Muñoz, L. C., Barry, C. T., Kimonis, E. R., & Aucoin, K. J. (2011). Assessing the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using self-report: Factor structure and invariance of the peer conflict scale in youths. *Psychological Assessment, 23*(3), 792-804.
- Marsee, M. A., Kimonis, E. R., & Frick, P. J. (2004). *Peer conflict scale*. Unpublished rating scale. University of New Orleans.
- Nelson, D. A. (1999).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patterns and prosocial behavior: A longitudinal study*. University of Minnesota.
- Ostrov, J. M., & Crick, N. R. (2006). How recent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relational aggression and close relationships in early childhood advance the

- fiel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189-192.
- Pulkkinen, L. (1996).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early adolescence as precursors to anti-and prosocial behaviour in young adults. *Aggressive Behaviour*, 22, 241-257.
- Quay, H. C. (1986).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of childhood* (3rd ed.). New York: Wiley.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le, B. G., & Nesdale, A. R. (1974). Children's reactions to information about the intentions underlying an aggressive act. *Child Development*, 45(3), 794-798.
- Rys, G. S., & Bear, G. G. (1997). Relational aggression and peer relations: Gender and developmental issues. *Merrill-Palmer Quarterly: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43(1), 87-106.
- Salmivalli, C. (2001). Feeling good about oneself, being bad to others? Remarks on self-esteem, hostility, and aggressive behavior.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6(4), 375-393.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orkqvist, K., Osterman, K., & Kaukianen, R.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1), 1-15.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isse (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 and stress* (pp. 89-108). New York: Springer.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1).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Boston, MA: Allyn and Bacon.
- Vitiello, B., Hill, J. L., Elia, J., Cunningham, E., McLeer, S. V., & Behar, D. (1991). P.R.N. medications in child psychiatric patients: A pilot placebo-controlled study.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52(12), 499-501.

## ABSTRACT

###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Peer Conflict Scale(K-PCS) for use with young adolescents

Ha, Moon<sup>sun\*</sup> · Kim, Ji<sup>hyeon\*</su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a reduced version of the Korean Peer Conflict Scale(K-PCS) in order to measure the aggression levels of young adolescent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dicated that the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40 items were not exactly the same as those of the English one. Therefore, we needed to reduce the items of the full scale, and finally decided on 16 item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ith these 16 items was performed for 311 young adolescents and a four-factor structure with 16 items was identified. The four factors thus identified were Reactive Overt aggression(RO), Proactive Overt aggression(PO), Reactive Relational aggression(RR), Proactive Relational aggression(P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354 young adolescents was performed and the four-factor structure of K-PCS fitted well to their responses. Additionally, convergent, discriminant, and criterion-related validities were also examined.

Key Words : aggression, PCS, young adolescents

투고일 : 9월 10일, 심사일 : 11월 20일, 심사완료일 : 11월 30일

---

\* Hongik University

